

Special

2010년, 이 제품들을 주목하라 Part.1

현대 혼 스피커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매력

Avantgarde Duo Grosso G2

글 최성근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 가격 : 5,700만원 · 재생주파수대역 : 170Hz-20kHz(새틀라이트), 18Hz-350Hz(서브우퍼) · 서브우퍼 출력 : 250W · 서브우퍼 토로이달 트랜스포머 : 540VA
· 크로스오버 주파수 : 170Hz, 2kHz · 임피던스 : 18Ω · 출력음압레벨 : 107dB/W/m · 권장 앰프 출력 : 10W 이상 · 파워 핸들링 : 100W
· 크기(WHD) : 67×169.5×60cm · 무게 : 88kg

이번에 소개할 스피커는 듀오 그로소 G2이다. 아방가르드의 실질적인 톱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스피커. 듀오 그로소는 듀오 오메가보다 몸집이 좀더 크다. 아방가르드 혼 스피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아방가르드의 혼 스피커는 일반적인 혼 스피커와는 약간은 다른 듯한, 다른 한쪽에선 완전히 다른 면을 추구한다. 일반적인 혼 스피커라고 하면 컴프레서 드라이버를 사용하지만 아방가르드는 다이렉트 라디에이터 방식의 유닛을 사용한다. 또한 아방가르드 스피커들은 패시브 크로스오버가 없다. 혼의 디자인과 유닛을 탑재한 챔버를 통해서 자연적인 감쇄 특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듀오 그로소의 경우 듀오 오메가에 비해 베이스의 다이내믹 헤드룸이 실질적으로 2배로 향상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드라이버의 위치 변동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네오디뮴 마그넷은 18Ω에서 107dB(W/m)의 능률을 일으킨다. 앞서 언급한 스펙만 보더라도 아방가르드가 듀오 그로소를 통해 얻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듀오 그로소가 아방가르드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SUB231이라 명명된 서브우퍼와 혼합 구성된 혼 드라이버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스피인 것이다.

필자가 눈여겨보는 것은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채용하지 않은 설계(정확하게 트위터에는 2개의 부품을 사용하고, 미드레인지 는 사용하지 않는다)에 있다. 모든 스피커라는 것에 입력되는 신호는 파워 앰프에서 증폭된 음악 신호이다. 이것이 CD일 경우 20Hz에서 20kHz까지 증폭되어 유입되는데, 하나의 유닛에서는 이 모든 신호를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이 재생할 수 있는 주파수에 맞게 필터링 해주어야 한다. 이것은 액티브 방식과 패시브 방식으로 나뉘지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스피커는 패시브 크로스오버 방식이다. 하지만 패시브 소자를 통과하면서 필터링을 얻어내게 되면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음악 신호의 로스이며, 두 번째는 위상의 변화이다. 하지만 듀오 그로소는 이런 문제를 가지지 않고(미드레인지)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설계를 요구한다. 컷 오프 주파수가 정확하지 않으며 완벽하게 컷 오프가 되지 않아 주파수 중첩이 일어나면 매끄러운 소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옥타브 당 감쇄 음압 특성도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얻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방가르드 듀오 그로소의 경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미드레인지에서 패시브 소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필터링을 얻어내고 있다. 혼 스피커 로우 컷 주파수의 경우 혼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다. 혼의 크기가 커질수록 주파수 응답은 떨어지게 된다. 듀오 그로소에 채용된 혼

의 컷 오프 주파수 대역 아래의 응답 특성은 옥타브당 18dB로 가파르게 떨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하이패스 필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높은 쪽 주파수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론적으로 혼 디자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진동판과 혼의 목 사이에 작은 챔버를 설치하여 해결한다. 드라이버가 직접적으로 음을 내지 않고 작은 에어 챔버를 거쳐 혼 목의 개구부를 통해 발생시키는 이 방식은 공기 용적의 밴드 패스 필터와 같은 작용을 일으켜 자동적으로 챔버의 공명 용적(옥타브 당 6dB)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필터링해준다. 이 주파수 범위 내에서 6dB에서도 자연스러운 롤오프 주파수에 적합한 드라이버를 선택한다면 패시브 소자가 없어도 12dB의 감쇄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노력은 굉장히 어렵다.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아방가르드가 컴프레서 드라이버가 아닌 다이렉트 라디에이터를 선택하게 된 것도 자신들이 얼마나 커스터마이징을 하여 자신들의 스피커에 최적화된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도 고능률을 손쉽게 획득하면서 말이다.

그렇기에 아방가르드 듀오 그로소가 추구하는 소리는 조금 특별하다. 일반적으로 혼 스피커라고 한다면 소리의 방사 범위가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음의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모아 고능률을 추구하는 것도 고음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스페리컬 혼이라는 것은 방사 범위가 수직·좌우 180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음의 방사 패턴을 이해하고 디자인에 적용시켰기 때문에 혼 스피커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지향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스피커와는 다소 다른 느낌이 들며 처음엔 다소 적응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역의 밀도나 자연스러움은 대적할 스피커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얼마 전에 필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있었던 청음회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했던 이야기이다. 보컬 재생 능력은 온기감·정보량·자연스러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SUB231 서브우퍼의 경우도 고능률을 지향하기 위해 12인치 더블우퍼를 사용하고 있으며 액티브 크로스오버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룸 어쿠스틱 환경에 맞출 수 있는 세팅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G2 시리즈로 개량되면서 스페리컬 혼을 모듈러 타입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집안 분위기나 계절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스피커가 고음질을 얻어내면서도 사용자의 편의를 얼마나 크게 배려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혼 스피커가 가져다주는 매력이 무엇인지 아방가르드는 그 어떤 회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끔 만들어 주는 모델이다. **A**

